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전도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라는 명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는 「오라」고 하셨고(마11:28),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셨다.

복음을 전하러 네 집으로 가고, 네 동네에 가고, 네 학교에 가고, 상점에 가고 관청에 가고 모든 족속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가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열한 제자는 순종하여 모두 전도자가 되었고, 특히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 리빙스턴은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미개한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갔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죽었고, 토마스 목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하였다.

그런데, 믿는 자가 가라는 전도의 명령을 감당하기가 힘에 겹다고 순종하지 않고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강권 집행을 하시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가령,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오손도손 모여 있으면서 기도나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았지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의 몽둥이를 들어 예루살렘 성도를 쳐서 야고보를 죽게 하고, 스테반도 순교를 당하게 하는 큰 핍박을 주었다. 이 때에 성도들은 이 핍박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므로 그 결과, 복음이 세계 각처에서 전파되고 따라서 교회도 세워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라」는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전도의 대상자를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마가는 「온 천하에」(막16:15), 누가는 「땅끝까지」(행1:8)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지역이나 가리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전도와 함께 국외전도를 겸하여 실천해야 한다. 가령, 미국이나 영국이 자기 나라를 다 전도하여 예수민게 한 후에, 외국전도를 하였더라면 한국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도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어떠한 역경도 전도자를 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고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세 청년을 풀무불이 해하지 못했다(단3:27).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니엘을 사자가 해하지 못했다(단6:22).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잠잠하여 진다(마8:27).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끝날 때까지 전도자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총현교회가 4월을 총동원전도의 달로 정하였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도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전도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주간 이 성 근

五 大 目 標
天國일꾼養成
北 韓 宣 教
民族福音化
世 界 宣 教
聖 殿 建 築

4 월호

차 례

권 두 언	가라는 명령	주 간	2
이달의말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합시다	김창인	4

❖ 기획특집 <전도의 달>

▲ 전도와 교인배가	이양우	8
▲ 4 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정석태	11
▲ 초청 전도법	이세열	14
부활논단 /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신성종	6
기획연재 / 교회성장과 교회교육	조영길	26

특별 좌담회

새성전 정착시대를 위한 전망	16
충현컬럼 / 전도와 성령의 역사	조현명 25
선교사 · 선교소식	28
이름없이 빛도없이 / 전도에 앞장선 노인전도팀	30
토론토에서 온 편지	30
교회소식	31
이달의 교우동정	33
이달의 행사 및 편집후기	34

월간 충현

1972년 4월30일창간
제13권제 4호
통권 128 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표지사진설명 □

4월은 전도의 달이다. 넓은 장소로 이사온 우리충현교회는 본당이 완공되기전 교인배가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다. 전도는 장소를 초월하여어디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실행해야 한다. 충현 남·녀전도팀이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호 표지로 잡아보았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합시다

김창인 (목사 · 본교회 당회장)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나 1 : 15)

1.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땅위에 있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딸 일곱을 줄줄이 낳다가 아들을 낳았다면 괜찮은 소식이고, 입학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되었다는 것도 즐거운 소식이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 사람의 탄압을 받던 중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땅 위의 아름다운 소식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못하고 성격상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에는 기쁨과 함께 좌악의 때가 묻고 걱정과 근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성공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었을 때에 500년 600년간 뱀죄하던 니스웨도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의 내 동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니 너무나 불쌍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니스웨가 100년 전에 요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고 살았었으나, 지금 나훔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오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 뿐입니다.

그러니 욕심, 교만,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칼을 뽑으시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칼을 뽑으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성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 때문에 거절하면 불행해지고 맙니다.

2.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4: 15)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활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좌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거나, 누워있듯 게으름을 피우지도 말고, 일어나 기도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연구의 산, 청결한 생활의 산에 올라가고 땀흘려 충성하고 노력하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충청교회가 북한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민족복음화, 새

계선교의 꿈을 안고, 김 일성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발이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운동이란 전도하기 위한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갯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갈보리 산상에도 올라가야 북한과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2)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나 1 : 15)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백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랫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라면서 웃사람이 법을 밟아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손해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배보취급을 받고 또 물질의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양심있는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고, 후세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며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약속하고 위정자들이 백성에게 약속하고, 교역자가 교인과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길입니다.

6·25사변 때 피난가면서 혹은 몸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 주시면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3)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나 1 : 15하)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약속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3.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



지어다 악인이 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1 : 15)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산 위에 올라가듯 몸소 행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법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 밤낮 너희를 위협하던 악한 자들에게 내가 통행금지령을 내려주마”라는 축복입니다.

아직까지도 김일성이 무력통일을 꿈꾸며 남쪽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행금지령을 내려 “휴전선 남쪽으로는 한 걸음도 못 넘어간다./” 하시며 6·25와 같은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괴 원수에게 통행금지령을 내려드립니다. 그래도 김 일성이 말을 안 들으면 “정녕 내 말을 안 들겠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압록강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산, 기도하는 산, 봉사하는 산 위에 빨리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또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원수에게는 우리에게로 오는 길에 통행금지령을 내리시고 또한 그들을 뿌리채 뽑아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신 성 종
(목사·본교회 협동목사)

1. 머리말

공산주의 신조제1 항에 보면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어머니의 태안에서의 10달 동안의 짧은 생명과 태밖에서의 보다 긴 수십년의 긴 생명이 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이 있고 이 땅밖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중간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문제는 우리 모두의 내세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보증수표이다.

2.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최근 이태리 베에몬트 지역의 수도인 토리노에서 예수님의 수의를 발견하였다.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조사 끝에 예수님의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얼굴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의 결론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에 생겨진 것이라고 한다.

(2) 예수님의 빈 무덤

예루살렘에는 「로란타」라고 불리우는 돌로 된 표지가 있을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공자나 석가나 세계의 모든 성인군자들의 무덤이 있고 그 속에 시신이 묻혀 있건만 예수님의 경우에만 빈 무덤으로 남아 있다.

(3)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500여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바울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거짓 말할 사람들이 아니다.

(4) 죽음 앞에서 비겁하던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용기와 담대함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베드로를 보라. 여중 앞에서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비겁쟁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박힐만큼 담대할 수 있는가?

(5) 지금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을 파리처럼 생각하며 남을 죽인 유괴범, 살인범들이 자기의 눈, 코, 팔 같은 것을 남을 위해 기증하며 죽어간 예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 한국에서만도 지난 백년동안 800만의 신도와 2만5천여 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 증거인 것이다.



3.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예수님의 오심도 성경대로, 그의 십자가도 성경대로, 그의 부활도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다. 시편 16:10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란 말씀은 부활의 예언으로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해준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서 잉태되었고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토론할 때도 신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셨고 삼대시험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달릴때(마27:54)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셨으니”라고 하였다.

(3) 사탄의 사망권세를 이긴 것을 선언해준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죽음은 다 사탄의 역사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요19:30)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역사의 성취를 뜻하는 말씀이다. 사탄의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말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4) 주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보증이다.

고린도 전서 15:20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임을 말씀한 것이다.

(5)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재림에 대한 보장이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에 대한 예언뿐이다. 과거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신실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4.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해야 할 일

(1) 먼저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기쁨은 나누어 줄 때 의미가 있고 또 증가된다. 이제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중에서도 부활이 핵심이 된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 땅의 혼돈과 거짓과 어두움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한국의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움의 결과이다. 이 얼어붙은 마음은 오직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외에는 녹일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데서 온다.

이기적인 인간이 녹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다.

(3)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의 급진적인 경제성장의 찌꺼기인 물질주의의 타락된 삶속에서 허무적저리고 있다. 여기서 사는 길은 도덕적 혁명이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 이 세상만 바라다 볼 때에는 모든 것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

(4) 끝으로 종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겸손과 봉사로 일생을 사셨던 주님의 모형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5. 맺는말

이제 만날 때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maranatha)의 신앙과 직결된다. 이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다.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겠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전도와 교인배가



이 양 우

(목사 · 제4교구 담당 · 민족복음화연구소부소장)

I. 서언

인류의 소망이요 구세주가 되시며,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4월! 이 달을 충현교회는 「충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였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달에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기도하며 생각해왔던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II. 본론

1. 교회성장(부흥)의 전제조건

(1) 이상적 충현교회상의 부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충현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요,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상을 정립하여 사회에 부각시킴이 마땅한 줄 안다.

〈첫째〉충현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랑과 화목의 따뜻한 교제가 흘러넘쳐서 새교우가 처음 충현교회를 올 경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맘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민족과 세계를 위한 충현교회상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당회장 김창민 목사님의 목회 역점사업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교인들, 또 복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는 북한선교에 열심하는 교

회상, 그리고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역수출하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며 헌신하는 교회상을 더욱 확고히하여 온 국민에게 부각시키도록 모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첨가한다면 한국 국민의 음주량이 세계상위권이며, 한국 국민의 음주성향이 매우 높은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범교회적, 민족적 「절제운동」을 일으키고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2)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신속한 실천.

「교회는 세상의 맛있는 곳에 신앙의 맛을 제공하고, 썩어 부패한 곳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되라, 또 의심, 불신 좌절, 죄악과 질병과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라」(마5:13-16)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에 지역사회를 떠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관과 교육관의 개방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신앙상담, 법률상담, 건강상담, 가정문제 상담, 청소년문제 상담등 대사회적인 획기적인 간접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지역사회의 음지라 할 수 있는 몇 곳의 양노원, 고아원, 정막아수용소, 구치소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 물심양면으로 잘 보살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충현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랍게 성장되도록 축복하실 줄 확신한다.

(3) 수용태세의 완비

〈첫째〉 새성전 본당의 조속한 완공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또 충현교회의 목표 즉, 천국일꾼의 효과적 양성, 힘있는 북한선교 사업 위해, 민족복음화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선교 사업을 위해, 그리고 새 교우 등록시 부담감의 감소를 위해, 교회부흥의 급성장을 위하여, 하루속히 새성전 본당이 완공되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와 물심양면의 헌신과 충성이 긴급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둘째〉 교인들이 친절운동, 스마일운동을 펴야 하겠다.

전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주인이 친절해야 손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늘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하나, 얼굴의 모든 모습까지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닮도록 더욱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자석이 모든 철을 끌어 당기듯, 예수님의 사랑의 미소가 있는 친절한 성도는 불신자의 영혼과 몸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음이 자명하다 하겠다.

(4) 전교인의 기도의 생활화 및 기도의 조직화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기도로 바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하루중 30분 이상은 꼭 확보하도록 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받도록 독려하며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충현교회 5 대목표의 조속하고 내실있는 성공을 위해 「24시간 연속 기도운동」을 다시 계속함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

영양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에 손님이 몰려가듯, 영력있고 박력있고 은혜스럽고 깊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선포에 수종드는 모든 주의 종들은 더욱 깊이 있는 성경연구와 기도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기르시고 심신하고 깨끗한 꼴로 배불리 먹이며, 또 맑고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공급할 수 있다면, 질적 양적인 교회성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한다.

2. 실제적인 교회성장(배가전도)을 위한 제언

(1) 전교인의 전도 체질화

이 민족의 살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각 분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와지는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꿈에도 잊지않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몸으로 물질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어느 부서든지 매월 1 번 정도는 「복음전도 설교」를 계속한다면, 교회성장은 더욱 생기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앙성장의 3 요소는 영혼의 호홉인 기도를 생활화하고, 영혼(신앙)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알맞게 섭취하며, 영혼의 운동인 전도활동을 지속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아무리 우렁아를 분만하여 그 아기의 폐가 튼튼하여 호홉(숨쉬기)을 잘하고, 소화를 잘시켜 음식을 잘 먹을찌라도, 움직이지(운동하지) 않는 어린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

이와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강권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일이며, 그들의 신앙을 알차게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는 금언과 같이, 영혼들을 믿음으로 잉태하고 분만하여, 잘 양육하는 - 전도에 힘쓰는 신자는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정병」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2) 태신자 (믿음으로 잉태된 전도 대상자) 전도의 활용 강화

전도의 1 단계로서의 「태신자 전도법」은 매우 훌륭한 전도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믿지 않는 식구, 친척, 친구, 직장동료, 학교친구, 이웃, 환자등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3 명씩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서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어려울때 도와주고, 생일때 찾아가며, 따뜻한 사랑의 말로 용기와 격려를 해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몸된 교회, -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이 있는 충현교회로 「와보라」고 인도하는 태신자 전도운동을 더욱 내실화시켜야 하겠다.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장년도 주일학교도 예배시간중 한 5~10분간 시간을 할애하여 일년에 1 월과 7 월 2 차례씩 태신자 전도카드를 적어 내도록 하여 각 부서가 태신자 카드를 잘 관리하고 전도를

독려한다면 교회성장은 더욱 힘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3) 70인 전도요원 훈련 강화 및 확충

전 교인은 전도를 체질화하되, 특별히 각 남·여 전도회 회원과 구역 권찰회 소속 구역일꾼(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및 주교교사나, 새신자 중에서 전도에 관심이 있고 열심있는 성도들을 선출하여 집중적인 전도요원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확충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주안에서 반석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부흥의 핵심요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군인의 간부화」가 현대전의 승리비결인 것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용사와 같은 전도요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현교회 성장은 신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구역 일꾼들의 영적훈련 강화

여름 휴가 중에나 알맞은 시기에 각 교구별로나 2~3교구 연합으로 기도원에서 신앙집회들을 통해, 구역 일꾼들의 기도훈련, 말씀훈련, 생활훈련, 전도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단계에 온 줄 안다. 어떤 권사님 까지도 대표기도 시키는 것을 두려워 떠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구역일꾼들은 고기잡는 그물과 같으므로 한 사람의 구멍이 뚫어지면 잡았던 고기도 도망나가기 때문이다. 각 구역의 알찬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통한 관리는 교회부흥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구역 일꾼들의 영성개발 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5) 문서전도 강화

충현교회는 지금까지 「월간충현」 「충현의 말씀」 「전도지」 등을 통해 많은 문서전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강남으로 이전한 충현교회는 비록 새성전 건축의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교회성장전도를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할 용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도 매개체로서 「충현의 복된뉴스」(가칭) - (매주 설교와 주요 교회소식, 구역공과등 게재)를 매 주 발간하도록 빨리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겠다. 우선 한 주에 2만부 정도 발간한다면 구역공부용으로나 노방전도, 축호전도용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선회될 것이다.

(6) 아파트 전도법 개발

지금 서울은 아파트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충현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일대는 아파트촌이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황금어장인 아파트 주민 전도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하겠다.

우선 아파트 전도의 기초자료로서 ① 아파트 동수와 가구수, ② 아파트 경비원수, ③ 아파트 주민의 의식구조, ④ 아파트에 사시는 충현교회 성도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아파트별 전도 책임자 2~3명씩 배정하여 집중전도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성도들의 집을 전도를 위한 사랑방화하는 등의 아파트 주민에 맞는 전도법을 개발하여 집중 공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학원 전도전략 연구

지금 한국의 국민학교 학생이 900만이 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도 900만이 넘는다. 여기에다 대학생까지 합하면 엄청난 복음의 여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학원전도 전략 연구 및 수립은 교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다.

학원전도를 위한 두어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기획조정실 조사에 의하면 충현교회 성도중 현재 국·중·고·대학에 재직중인 교사가 약 150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과 각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져, 현장감있는 구체적인 전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 우선 강남에 있는 몇 군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꿈꾸는 잘하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생으로 키우면서, 학원전도를 위해 전도요원화 한다면 대 사회적인 교회인식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고, 학원전도에도 매우 효과가 크리라 기대된다.

III 결언

충현교회와 성도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전도사명」을 잘 수행하는 충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고, 또한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고, 그리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양들의 참된 안식처인 충현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교회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마치고자 한다. - 임마누엘 -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행 5:42)

4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정 석 태
(장로 · 전도위원장)

“
와보라!
전도하자”

4월은 우리 총현교회가 새성전에 이사나온지 만 1년이 되고 또 선교 2세기가 시작되는 뜻 깊은 달에 총동원 배가전도의달로 정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새성전 건축의 완성을 눈앞에 둔 교회로서 교세확장과 부흥에 총력을 다하고 새성전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① 목표

총동원 배가전도를 통하여 각교구구역, 각부주일학교, 각부성가대, 각전도회, 각기관 등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배가 운동한다.

② 표어

전교인이 전도하자.

전교인이 배가 운동하자.

③ 전도기간 : 85년 1월 ~ 12월

○ 4월 : 각기관, 각부서에서 총동원 배가 전도주일을 지켜 전도 의욕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전교인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도록 독려하고 실천시킨다.

④ 전도 의욕의 고취 방법

“와보라” “전도하자”

1) 설교를 통하여

2) 구역공부 · 주교공부 · 성가대공부를 통하여.

3) 기도를 통하여

4) 전도헌신예배를 통하여 (4월 28일 저녁에 배시)

⑤ 전도방법

1) 각교구 · 구역 : 권찰위원회의 계획에 의거 교육과 전도실시 배가운동 한다.

2) 각부 주일학교 : 교육위원회의 계획에 의거 교육과 전도를 실시 배가운동 한다.

3) 각부성가대 : 성가위원회의 계획에 의거 교육과 전도를 실시 배가운동 한다.

4) 남녀전도회 : 각연합회의 지시에 따른다.

⑥ 전도 실적보고 및 표창

각기관 부서는 전도실적을 파악 매월말에 소정양식에 의거 전도왕을 표창, 시상한다.

(1) 민족복음화를 위한 85년도 전도사업의 중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많은 협력과 특지가와 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기대하면서 특히 농촌벽지교회 지원 보조할 협력자의 출현을 고대합니다.

(2) 대교회로서 농촌벽지교회를 도와야 할 교회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현재 우리교회에서 지원하는 농촌 교역자 중에는 고등학생 3명 중학생 2명이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어려움과 희생은 참을 수 있으나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참으로 견딜 수 없이 안타까와 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농촌벽지 교역을 기피하고 정착하지 못하여 벽지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4) 농촌벽지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할 일꾼도 필요합니다.

지원보조하는 교회 및 기관현황

강동노회소속 (산간벽지복음화전략지역) 11개교회

지원구분	교 회 명	소 재 지	교 역 자 명	지 원 부 서
지 교 회	신 현 교 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 1 리	김영기목사	청년부 · 한나 2 지회
지원교회	칠 성 교 회	" 삼척군 하장면	김용수 전도사	에스더 3 지회
"	고 양 교 회	"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한나 9 지회
"	유 천 교 회	" " 북면 유천 1 리	윤태원 전도사	에스더 7 지회
위탁교회	반 천 교 회	" " 임계면	이영재 전도사	LA총현교회
"	도 전 교 회	" " " 직원 1 리	김충렬 전도사	"
"	구 절 리 교 회	" " 북면 구절리	이수록 전도사	"
"	웅 정 교 회	" " 서면 웅정리	송영복 전도사	"
"	천 곡 교 회	" " 북면 문곡 2 리	강신효 전도사	"
"	미 산 교 회	" 평창군 미탄면 울치리	원인식 전도사	"
"	울 치 교 회	" 영월군 북면 마차 9 리	임창주·여전도사 김성숙 성도	"

강원노회소속 (3개교회)

지 교 회	서 현 교 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오창남 목사	제 2 남전도회
"	부 현 교 회	" " 남면 부평리	최상석 전도사	한나 1 지회
위탁교회	샛 별 교 회	" 원성군 소초면 둔둔리	이양화 목사	LA총현교회

충동노회소속 (2개교회)

지원교회	여 천 교 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 1 리	이종호 목사	제 3 남전도회
"	금 성 교 회	" 제원군 금성면 구룡 2 구	문창길 목사	에스더 6 지회

수 도 노 회

시 교 회	금 현 교 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장병기 강도사	제 1 남전도회
-------	---------	-----------------	---------	----------

함 북 노 회

지 교 회	재 현 교 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 2 리	허상은 목사	한나 2 지회
-------	---------	--------------------	--------	---------

수 원 노 회

지원교회	수 화 교 회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이한주 목사	에스더 4 지회
------	---------	-------------	--------	----------

서 평 양 노 회

지원교회	내오리교회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내오리	진영해 목사	한나10지회
------	-------	-----------------	--------	--------

충 남 노 회

지원교회	거야도교회	충남 서산군 남면 거야도	여전도사	대학생 면려회
------	-------	---------------	------	---------

군목지원현황 (8개교회)

군 교회 명	부 대 명	소 재 지	교 역 자	군계급	지 원 부 서
제 2067 군 인 교 회	육 군 2067 부 대	경기도 동두천	박병주목사	대 위	한나 3 지회
충 의 교 회	육 군 수 도 군 단	경기도 안양시	문원철목사	중 령	한나 5 지회 (교단 군목단장)
통신학교군인교회	육 군 통 신 학 교	충남 대전시	김상옥목사	소 령	한나 7 지회
미 3사단카츄사교회	미 2 사 단	경기도 동두천시	김원필목사	소 령	한나 8 지회
필 승 교 회	육 군 1113 양 공 단	경기도 안양시	탁정민목사	대 위	에스더 8 지회
해 군 중 앙 교 회	해 군 본 부	영등포구	유효군목사	대 위	에스더 9 지회
비 호 교 회	육 군 3 공 수 특 여 단	강동구	윤두환목사	대 위	에스더 10 지회
칠 성 교 회	부 산 군 기 사	부산시 광한동	조의호목사	중 령	한나 4 지회

병원 원 목 지 원 현 황

병 원 명	소 재 지	교 역 자	지 원 부 서
강 남 병 원	강동구 삼성동	신옥희 전도사	에스더 1 지회
"	"	홍명신 전도사	에스더 9 지회
경 찰 병 원	성동구 홍익동	이근하 목 사	한나 6 지회

경 목 지 원 현 황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원 부 서
시경 경목실	중구 남대문로	제 3 남 전 도 회
시경 기동대교회	종로구	제 3 남 전 도 회
중부서 경목실	중구 저동	제 3 남 전 도 회

기타 각기관 보조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교 역 자 명	지 원 부 서
영광맹인교회	성 남 시	김성환 목 사	에스더 5 지회
삼 보 교 회	강 서 구	박창운 목 사	에스더 6 지회
다메섹선교회	강 동 구	최국일 목 사	한 나 9 지회
그르터기선교회	용 산 구	조성범 목 사	한나 10 지회
낙도복음선교회	마 포 구	김봉렬 장 로	에스더 10 지회
장 미 회	중 구	박종철	에스더 3 지회
어린이선교회	서 울	조판규 목 사	에스더 5 지회
춘천·인천교도소	춘천·인천	박양덕 전도사	한나 2 지회

기 타 활 동 지 원

기 관 명	활 동 내 용	지원부서
소망부문서전도대	매주목요일에 병원, 보건소, 은행휴게실(50여개소)에 문서전도	제 1 남 전 도 회
대 학 생 면 려 회 NMC 선 교 단	매주 화요일에 국립의료원에 위문전도 실시	에스더 연합회
청 년 면 려 회	매주 화요일에 서울역전, 명동에서 문서 노방전도 실시	에스더 연합회
	매주 목요일에 중부서 유치장 전도 실시	"
	매주 금요일에 한대부속병원 위문전도 실시	"



초청 전도법

마태 22장 1~10

서론

교회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잘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도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전도방법은 전도의 성과를 올리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훌륭한 전도법을 교훈하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1~10에 보면 초청전도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 잔치에 오소서,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세번에 걸쳐서 초청해 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전도는 매우 귀중한 전도방법입니다. 초청하는 교회는 부흥발전할 것이요 초청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부흥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불러 들이는데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초청에 있습니다.

1. 천국에 초청합니다.

전도란 천국에의 초청입니다. 제가 소년시절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치는 전도자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의 전도방법입니다. 예수믿고 천국 가라는 전도였습니다. 예수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는 전도였습니다. 교회란 천국초청의 대행기관인줄 압니다. 교회가 죄악 세상을 향해서 외칠 말씀은 역시 예수 믿고 천국가라는 말씀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처럼 좋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지옥처럼 더러울 때 누가 천국가고자 하겠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외쳐도 천국의 대행기관인 교회가 천국처럼 좋지 않다면 그 전도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믿고 천국가라고 전도했더니 그사람하는말이 아무개가 예수 믿고 천국갈테니 그사람보기 싫어 예수믿지 못하겠다고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 사람보고 믿는 것 아니지만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은 사람보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처럼 좋아야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보고 빛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움이라면 누가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직분 감당못하면 버림당하게 됩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두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에 온 것처럼 좋아야 합니다.

2. 초청준비 합니다.

사람들은 초청하려면 초청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최상의 준비를 가르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 교회의 초청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준비하고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 살진 짐승을 잡은 것처럼 먹을 것 있는 풍성한 식탁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앎을 좌석을 뜻하는 줄 압니다. 흔히 교회의 성전을 잘 지으면 사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비좁고 누추하면 어찌 손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혹시 초청을 받았다가도 두번다시 찾아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중현교회는 본성전이 미완성 상태라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지하실이 먼지나고 춥고 어수선하면 두번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성전이 완공되어 올라갈 때까지 지하실이라도 잘 지어서(시설하여서)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올라가면 더좋은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잡고 죄많은 인생들을 초청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독자를 잡으면서까지 이

웃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성없이 아무렇게나 초청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우리교회는 무슨 준비를 하고 초청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오라 청해놓고 나오면 본체만체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나 오니 성전을 짓느라고 어수선했던 교회는 아닙니까? 사람은 많아서 육신법적한데 교회에 몇달을 나와도 찾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천교가 없는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보니 불평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안겨주는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니 부담감과 거부감을 안겨주는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것 갖추었으니 오소서 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청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교회의 주보를 보니 3월10일자 통계에 주일학교는 매우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당예배의 숫자는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교육관은 시설이 갖추어졌는데 본당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니 춥고 먼지나고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했으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합니다. 하루 속히 예배시설도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청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초청준비가 잘못되면 어떻게 전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 초청전도 합시다.

초청하여 오너라. 세번씩이나 임금은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청하여 오너라 명령하시는 줄 압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두움속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초청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받으러 가고 하나는 상업차로가고 세상일에 바빠서 교회의 초청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청자를 잡아 능욕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이와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전도했고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능욕하고 죽이는 것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아들

이지 아니하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절멸하고 그동네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전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지옥의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망하느냐 복받느냐(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중대한 결정을 가름하는 길목인 것입니다. 중대한 운명의기로에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 형제에 대한 동포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죽든지 살든지 기회있든지 없든지 힘 다하여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청한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가만이 있을 것이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길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만나는데로 데려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좋은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할 때까지 손님을 청하여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초청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결 론

충현교회는 퇴계로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작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퇴계로에서는 교회가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새교회건물은 넓습니다. 이제 본당에 올라가면 더 넓습니다. 1회(한번) 예배에 만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 본당에 올라가기 전에 2만, 3만의 성도의 출석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큰 성전 지어놓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의 건물은 큰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종의 사명은 끝어다 자리에 앉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요 교회에서 책임 질 것입니다. 전도는 청해다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금년에야말로 새성전을 채우는 일을 할 때입니다. 전도하여 부흥하면 본당에 올라가는 날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세열 목사(민족복음화 연구소장)

새성전 정착시대를 위한 전망

— 2천년대를 향한

충현의 비전제시



일 시 : 1985년 3월 8일 (금) 오후 6시30분

장 소 : 기획조정실 (선205호)

참석자 :

장정일목사 (수석부목사·구역권찰 회장)

최석주장로 (기획조정실장, 재정위원장)

조영길목사 (교육위원장)

김원남목사 (예배위원장)

이성근목사 (월간충현 주간, 문서선교사)

김기정장로 (건축위원장)

이응선장로 (기획조정실 부위원장)

정석태장로 (전도위원장)

사 회 : 김광신장로 (홍보출판부장)

사진 및기록 : 손경수집사 (월간충현담당)

사회 : 오늘 좌담회 내용을 “새성전(예배당) 정착시대를 위한 전망”이라고 제목을 붙여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작년 4월에 우리가 새성전에 이사를 온뒤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우리 새성전에 와서 지내면서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과거의 평가를 한번 해보 고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과 내일을 점검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역문제로 부터 기독교 교육문제, 심방문제, 교인간의 교제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우선 16부 주일학교가 1년전에는 좁은 장소에 있다가 큰 장소에 와서 1년동안 주일학교를 해 왔는데 교육적인 면에서 1년을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 교회가 무엇이나? 그렇게 물으면 저는 ‘교육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중에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5대목표 가운데서 천국 일꾼 양성이 제일 목표입니다. 천국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성을 해야된다는 것이며, 교육을 통한 천국일꾼의 배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먼저 짓고 본당은 완공못한채 이사를 왔지요.

사실 우리교회에 16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과거 우리 교회가 교육에 힘써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힘쓰고 있지요.

퇴계로에서의 좁은 교육관과 공간에 있다가 교육관과 선교센터가 이 넓은 공간에 나오게 되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계획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줄 압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와 당회, 모든 전체 교회가 교육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등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는 앞으로의 전망도 미래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아무래도 교육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배와 선교 등의 사명도 있기는 하지만 교육이 선행되어야 바른 예배가 되고 교육이 선행되어야 선교가 바로되며, 교육이 없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16부 주일학교의 활성화로 인한 미래를 내다 보는 철저한 계획, 교



▲ 장 정 일 목사

과과정 등 이런 문제를 손질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정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교육을 잘해 보고 여러가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교육관 시설 내지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일에 좀더 신경을 쓰고, 투자하고 협력하는 일에 앞장설서야겠습니다.

사회 : 교육관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주교 교육을 위한 인원 수용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차 문제도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건축을 계속하는 도상에 재정적인 지원이 그 전과 똑같은 현 상태에서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엔 예배문제를 한번 진단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남 : 새성전에 이사와서 무엇보다도 제일 정숙한 예배를 드리는데는 예배분위기를 조성하는것, 이것이 큰 문제인줄 압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환경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자세인데,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 최 석 주 장로

예배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금년부터 안내·헌금 당번들은 예배시작 20분전에 각 교구를 맡은 교역자들이 기도를 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있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전에서는 장소 협소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곳에 와서 풀린 것이지요.

또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 해소할 수 없는 것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제일 마음에 중압감을 느끼는 것이 건축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이 엉성하게 뼈다귀만 남아 있고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상당히 정신적인 면에서 마음이 산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김창인목사의 찬송으로 예배분위기를 잡는 것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건축 건물에서 느꼈던 산란한 마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송하므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모든 교인이 함께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예배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실행중인 것이지만 좌석안내원 이외는 예배당내에 세우지

않기로 했고, 후보도 출입구 탁자위에 놓아 교인 스스로가 집어가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내에서의 후보전달은 일체 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사회 : 우리 교회가 10개 교구로 분할하여 교구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후 구역변동이 있었고 교구도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1년동안 구역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 구성전에서는 구역활동에 장소관계로 상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교육관에 교구 목회실이 확보되고, 교육관 2층부터 교구 모임실이 배정되어 교구목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작년 이곳에 오면 구역확장과 교인이 많이 성장될 것이라고 믿고, 1만세대 1,500구역이라는 목표아래 교세배가에 역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이 목표는 30년동안의 성장을 1년동안 배가하려는 목표 였는데, 예상외로 저조했고, 우리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으로 오게 되면 예배당 건물도 크고 새로운 분위기등의 함수관계로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성장과 아울러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느껴 기대치의 목표를 잡아보았으나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작년(84년도) 통계를 보면 4,609세대 였는데 85년도 1월 현재 543세대가 늘었으나 만세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구역조직도 80년대를 보면 80년에는 5 지구에 299구역, 81년도에는 7 지구에 309구역으로 80구역이 늘었고, 82년에는 7 지구에 337구역으로 28구역이 늘었으며, 83년도에는 5 지구로 줄어 들었죠, 그래서 621구역으로 284구역이 늘었고, 84년도에는 지구를 교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0교구로 배가 시켰고 749구역이 되어 126구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3년과 84년도에 구역도 대폭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구역을 5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세대부흥보다는 구역성장과 교구목회 활동입니다.

이사오기 전에는 구역권찰회를 한달에 1회씩 회집했지만 교구목회 활동은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구목회 중심체제로 조직 개편

되었으며, 교역자들이 교구목회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이외의 교회내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평가와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태: 그간 새성전에 온후 온 교회가 강남 지구에 적응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각위원회에서 새해부터는 분명한 목표와 포부로서 교세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줄 압니다.

특별히 전도위원회의 금년 계획은 기획기관으로써 교회의 전도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전 권찰회와 교육위원회에 이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온 교회가 전도에 총집중해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저희가 처음 이사올 때에는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고 또 1 년동안 지내보니 처음에 기대했던 것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대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형교회답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교회적인 역할 내지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자체 일 때문에 대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1년을 지내온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석주: 우선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오니까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부서대로 또 각 기관은 기관별로 방조정과 활용계획에의 조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도 구성전에 있을때 보다 별차이 없는 대등한 예산으로 더 증액을 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성전에서의 관리유지비 보다 이곳에 와서 유지하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것을 억제하면서 쓰다가 보니 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과 또 여기에 따르는 실천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겨울을 지내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빨리 교회가 정착하고 각 기관이 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기관책임을 할 때 교회가 부흥되리라 생각합니다.



▲ 조 영 길 목사 ▲

또 한가지는 강남 지역에 맞는 목회지도 이념이 서고 강남에 사는 분들이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 분들이 교회에 찾아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그 분들을 붙들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강복교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밀집된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총회 교회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지난 1 년동안 저희가 건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을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정: 각부 책임자들이 새성전이후 1 년동안의 여러가지 말씀들을 나름대로 해주셨읍니다. 마는 저희 건축위원회도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 실무를 담당한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눈에 띄일정도의 공사는 못했으나, 부분적으로 지하실 난방 공사및 기타 조정 사업등에 역점을 두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간 1·2 차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앞



▲ 김 원 남 목사 ▲

으로 3 차공사를 통하여 본당건물 및 내외벽 시설공사와 지하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공사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 : 우리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신학내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성근 : 충현교회의 신학 및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또 같은 종류의 문제로 설립자의 개척 정신과 목회이념을 전수할 수 있느냐? 또한 젊은층의 연구 조건을 어떻게 수요하느냐 등 몇가지가 함께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줄 압니다.

신학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활양태가 변해 왔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본질은 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설립자의 개척정신이나 목회이념은 그대로 교인들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설립자의 목회이념이 전

수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후계자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 젊은층들이 요구하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는 교회의 기본노선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지도하고 성경에 인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할 줄 압니다.

사회 : 우리나라 경제가 수년내에 계속불황을 이어왔고 교회도 국가경제와 더불어 같은 불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문제도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축도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응선 : 구체적인 숫자상의 문제는 생략하고 몇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성도의 헌금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절약할 수 있는데도 절약이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나 우리교회는 이 점을 극구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출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은 사례금과 직원 급여입니다.

교세확장에 수반하여 자연증가 되는 것이 교역자님을 모시는 일과 유급직원을 채용하는 일입니다.

교구가 2 배로 확장되어 목사님 다섯분과 전도사님 다섯분을 모셔야하나 각 부서에서 보완하였고 유급 직원은 기본 골격 만을 유지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원 봉사자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운영의 체계화입니다. 재정 지출의 결재자가 한사람일 때 일의 능률화를 기할수 있으나 시행착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비생산적이라고는 하나 재정 위원회가 품목 하나 하나를 심의하고 완급을 구분하여 집행하되 상임 감사의 감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완벽한 재정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건축부 재정이 85년 부터는 재정 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건축 우선 순위에 밀려 일반 재정 지출이 유보되는 형편이나 성전 완공될때 까지는 우리가 넘어야할 고개이므로 기도하며 참고 서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새째 예산 절감 운동 입니다.

각 부서에서 새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체 부서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주의일)를 거두기 위한 기도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감탄할 일입니다.

특히 전도 위원회에서선 앓아서 돈을 사용하는 전도 방법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몸으로 활동하는 전교인 전도 요원화 하는 운동을 전개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째 성도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말씀위에 굳게서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의일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넓게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월남 할 때 일, 6·25 동란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헤메이던 일 굶주리고, 헐벗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새성전 건축도 허락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곧 내가 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사회 : 이제 과거와 현재는 이만큼 얘기하시고 앞으로 충현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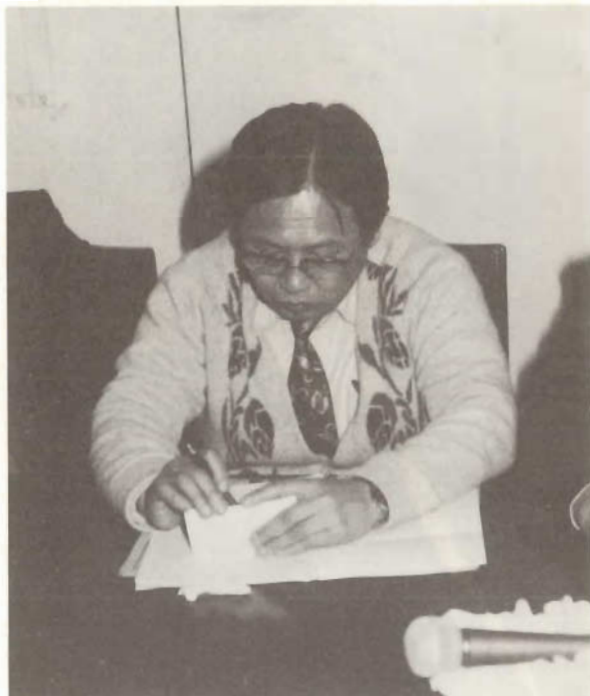
특별히 교육과 구역활성화문제, 전도문제, 또 전체적으로 충현교회당이 완공한 후의 2천년대를 향해서 민족과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제도수정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 부터 큰 것에 이르기 까지 하나씩 하나씩 목표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일꾼 키우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문제를 바로 키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운데 충현교회의 미래 교육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길 : 새성전에 와서 교육적인 공간은 확보되었고 교육을 제대로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일 것입니다.

교육의 활성화는 당면한 문제이며, 사실 우리 교회의 교육적인 제도는 잘되어 있다고 봄



▲ 이 성 근 목사

니다.

영아부에서 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 별로 신앙적인 기독교 교육이 제도적으로 잘 조직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 연구원이 있습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을 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며, 2년간 공부하면 졸업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성경공부에 온 교인들이 참여해서 성경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할 줄 압니다.

또 교사재훈련내지는 교사 양성부가 있어 임시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정교사의 자격을 얻는 일종의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이제는 16부주일학교 교육이 그런대로 새성전에 와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정착이 되었으니까 각부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잘 될줄 믿어요.

앞으로 16부 주일학교의 커리큘럼을 손질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작성하고, 또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교회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에 맞는 교과서를 집필해 내도록 지금 연구하고 시도중에 있습니다.



▲ 김 기 정 장로

사회 :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예배를 드릴 때 전 연령층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 되어지고, 청년층을 위한 특별한 예배, 그리고 메시지, 예배의 엄숙한 분위기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분위기 조성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원남 : 우리 교회는 2천년대에 가서는 새성전 건축도 끝나니까 본당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본당에 올라가면 하나 믿어지는 것은 예배 분위기 정숙이겠지요. 그 면에서는 우리교회 교인들 속에 박혀 있으니까 정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본당에 8천명 이상 회집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대학생 이상 정도는 좀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사회 : 저희 교회 5대목표중 세가지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얼마큼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도활성화에 대한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석태 : 우리가 2천년에 가서는 새예배당은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당 건축하는 짐은 벗어놓게 됩니다.

그다음엔 국내외에서 전도사업에 총력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주일학생들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이 전도운동을 전개해야 함은 물론, 농어촌 교역자 양성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복음화를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 15~20군데 교회를 개척교회와 지원교회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의 교육 수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대로 충신나온 목회자는 한두분 정도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농촌에서 헌신할 교역자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회 :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교구활성화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구가 활성화되면 성장이 촉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구 활성화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정일 : 교구 활성화라 하면 다른 말로는 구역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역을 활성화한다. 할 때에는 구역장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을 구역장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구역이 부흥되고, 또 구역장이 자기의 책임을 못할때 무너진 구역이 36개 구역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구역장이 구역활동을 못함으로 오는 결과였습니다.

제가 금년에 2교구를 맡게 되어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구역점검이었습니다.

각구역 담당자에게 권찰의 봉사유무, 구역장의 예배인도 여부를 알아 보았는데 일부 구역이 구역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구역장 활동 여하에 따라 교구가 활성화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역장들이 일 잘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교구가 이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대부분이 명목상으로 남자 집사들이고, 실제로는 집사 부인들이 대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매년 구역장을 중년층 남녀집사로 임명했는데 결국은 권사들이 인도하고 권사들이 구역장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역 조직의 일꾼은 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구역장 일을 전부 권사들에게 맡길 수 있는 처지가 안되니 앞으로는 40대의 젊은 구역장들을 확보해서 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구역장들만 모이는 조직모임이 있어서 구역장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구목회 중심이 되어 구역을 활성화해야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일 3부 예배후의 교구 모임은 이제 정착단계가 된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하여 모범구역과 모범구역원을 표창하는 일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도하는 구역과 구역원들에게 격려하는 의미 전도하는 구역과 구역원들에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표창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문제로는 대심방에 대한 개선점입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대심방이 시작되었지만, 각 교구별로 대심방이 끝날려면 오는 11월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도 구역심방을 통해 해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역심방이라고 하면 구역원들이 한곳에 다 모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구역식구들이 구역장 집이나 혹은 구역원집에 모두 모여 교역자가 그 곳에 가서 한시간 정도 각세대 카드를 확인하며 각 구역원들의 사정을 살피고, 말씀도 주고, 축복도 해주는 일이지요.

사회 : 우리가 새성전 완공의 꿈을 모두들 갖고 있고, 온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차공사는 언제쯤 시작되게 되는지요 ?

김기정 : 교회 전체가 큰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새성전 건축은 빨리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봉헌 하기를 모두가 원하는 일들입니다.



▲ 이 응 선 장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3 차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예정 시간보다 좌담회 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2 천년대의 충현교회의 미래상들을 나름대로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근 :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충족시켜 주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후 1965년도경 까지는 왜정 36년이나, 6·25 사변을 통해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한 교역자들을 존경하며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현교회도 많은 교인들을 거느릴수 있었습니다. 그후 70년대에는 부흥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교적인 결단성과 부흥사적인 충격과 말씀에 철저히 뿌리박은 목회적 차원의 교회로 나타나야 2 천년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교회가 될것입니다.

최석주 : 목사님 말씀하신대로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갈망하는 교인들이 찾



▲ 정 석 태 장로

아나올 때 숫자적인 증가와 또 그런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활할 때 그 가정들이 경건해지고 성장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곳 역삼동에 와서 빨리 부흥해 보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하신분들 못지않게 교인들 전체가 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런 교회로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건축이 우선 내장 공사 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것 같구요.

앞으로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교회 본당 좌석이 꼭 메워질 것이고, 경건된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상당될 것입니다.

허둥대지 않은 차분한 마음으로, 교구목회, 전도, 교육을 착실히 하게되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창인목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시고 목회하신 그 방향이 계속 계승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응선 : 제가 앞으로 주교 교육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 양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의 성전건축을 하는 순서를 보면 본당을 건축한 다음에 교육관 선교관을 건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교회는 교육관과 선교관을 먼저 완공하여 완벽한 교육시설로서 주일학교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목회방침이며, 또한 충현교회의 천국일꾼 양성에 대한 집념이기도 합니다.

요새 사회는 급진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신학교에서 사이비목사를 배출하고 신신학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위급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돈벌기에 바쁘고 좋은학교 진학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의 제묵으로 삼고 자녀들의 영적주소에 대한 관심을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때에 교육을 담당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겠습니까?

16부 주일 학교에 장, 단기 교과 과정표를 정비해서 교리적 선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깊이에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교훈에 대한 확고하고 신중한 표현이 없으면 갖가지 오류와 온갖 이단에 휩쓸려 마침내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길을 걷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행사도 중요합니다. 오락성을 띤 흥미본위의 행사는 지양하고 말씀에 기초를 둔 깊이있는 교양프로를 개발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씩씩한 천국 일꾼으로 양성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오랜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일동 : 감사합니다.



사회 / 김 광 신 장로

전도와 성령의 역사



조 현 명
(장로 · 본교회당회서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며, 복음 선포인 전도로 성장한다. 선교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민족 복음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서한 가운데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조하였다.

전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지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한 바울의 말은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동안 좇아다니며 예수님의 여러가지 사건을 보고 경험하였으나 십자가 앞에서는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무능한 나약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그는 옛 나약성에서 오는 공포심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님을 주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열흘동안 한자리에 모여서 전혀 기도예힘을 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후 교회부흥운동이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일기 시작했다. 교회는 성령의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능력이 없다.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진로에 돌입한 이 때 이제는 내 자신을 불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

의 부흥과 성장도 역시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곧 이런 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다. 성경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성령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도달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회개의 사실은 모두 사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라도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 된 것이 없다. 고넬료의 회개의 경우에 천사도 그에게 구원의 방도를 보여줄 수가 없었고 오직 구원을 얻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를 고넬료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울의 기적적 회개에 있어서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 곧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장면에 개입되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성령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실 길이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 엄숙한 교훈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좀 더 조심하여 성령께서 조금도 지장 받으심이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이며 기도 구력도 놓치지 않는 새신자 간수와 교인 보전에 힘써야 하겠다.

교회성장과 교회교육



조 영 길

(목사·교육위원장·제3교구담당)

지난번 호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의 교육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회교육과 교회성장”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II. 교회교육과 교회성장

교회성장의 비결은 여러가지가 있을것이지만 그 모든 방법들중에서도 교육적인 방법을 결코 제거하여 버릴수가 없다.

1) 교회교육이 바로 교회성장이다.

교육을 통한 교회성장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 중에 저 유명한 미국의 워커인, 드라브인 교회는(예배실로 성한 사람들은 걸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걸을 수가 없는 불구자나 환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도록 시설된 교회)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술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에서 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에 대하여 세가지로 말씀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영감이 가득찬 설교가 항상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둘째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셋째로는 열렬한 광고와 선전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선전이라함은 열심 있는 전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참 좋은 방법으로 본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언제나 청중들에게 소망적이 되고 긍정적이며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위로와 문제해결을 주는 영감이 넘치는 생명의

의 메시지가 되고 교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 즉 어린이들에서 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참여할 수가 있으며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고 그 지역사회에 이같은 교회가 생활 가까이 있다는것을 여러수단을 통하여 알리고 전체교인들이 열심으로 나가서 불신지역 사회에 전도할때에 그 교회는 분명히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교회로 성장한 밴 나이스 제일 침례교회 해롤드 엘 피케트 목사님은 15명 교인으로 개척하여 오 늘에는 수만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케 되 었는데 그는 그의 저서 “교회성장의 열가지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 부흥의 원리를 제시 하였다.

1. 예수님 중심의 교회
2. 성경중심의 교회
3. 전도하는 교회
4. 중생한 교인들로서의 교회
5. 신뢰받는 지도자의 교회
6. 성경적인 재정정책을 하는 교회
7. 충분한 직원을 가진 교회
8. 믿음에의 동력화
9. 봉사에의 다양화
10. 프로그램의 균형 등 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원리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본다.

특별히 성경중심과 전도와 믿음과 봉사와 균

형유지에 힘쓰는것을 보게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하는 교회이다. 성경을 중심한다고 하는 말은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은 바로 교회교육이며 교회는 곧 성장이다. 교육하는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하기 마련이다.

지난 1월에 두 주간동안 교회의 특별한 배려로 베델성서 강습회에 다녀왔다.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베델성서연구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거의 실시하고 있으며 성경을 인류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개관하여 가르치는 교회교육으로 교회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베델성서연구 교육은 본래 1959년 미국 위스컨신주 매디슨시에 있는 베델 루터교회에 교육목사로 부임해온 할레이 스위검 목사님이 장년교육을 맡아서 교회내 장년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시험을 치루어 보았다. 그 결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장년신자들의 성경상식이 겨우 13세 어린이들의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위검 목사님은 성경교육에 힘쓰는것이 바로 교회성장의 지름길이고 교회의 급선무인것을 알고 2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친구약 성경을 모두 40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가르칠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20명의 교인들을 선별하여 2년동안 철저하게 교육하여 그들 20명들로 하여금 유능한 성경교육 교사로 임명하여 20개의 성경공부반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교육하였다. 그 결과 전체교회 신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시작된 베델성서연구는 이웃교회로 이웃교회로 파급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만도 1974년 부터 지금까지 2,000여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강습회에서 교육을 받아 각지교회에 돌아가서 교육하고있는 실정이다. 강습회 기간동안 실제로 지교회에서 베델성서공부를 실시하여 교회 성장에 성공한 목회자들이 와서 그 성공사례를 간증하는 것을 직접들었다.

비단 베델성서 교육 뿐이겠는가?

무슨 방법이던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는 새롭게 새롭게 부흥할 것이다. 성경을 철저하게 교육하면 교인들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 성숙한 성도

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충성하게되고 나가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식구와 이웃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오지 않을수가 없게된다.

왜냐하면 말씀속에 믿음이 있고(롬 10:17)중생이 있고(벧전 1:23) 영생이 있고(요 5:39) 복된 삶이있고(신 5:33) 행복이 있고(신 10:13)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렘 15:16 하 시 119:165) 위로와 소망이 있고(롬 15:4) 기도와 응답이 있고(시 119:145, 잠 28:9) 병 고침이 있고(잠 3:8, 4:20-22) 말씀속에 성공이 있기 때문이다(잠 13:13, 16:20, 시 1:1-3)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매개로 한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씀없이는 기도가 얇되고 말씀없이는 전도가 얇되고 말씀없이는 봉사와 충성이 바로 얇된다.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의 교육이 선행해야만 한다.

말씀없는 예배와 말씀없는 기도와 말씀 없는 전도를 생각하여보라! 과연 그것이 바로 되겠는가? 절대로 바로 될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로 교육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것은 말씀이 책임을 지신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은혜가 충만한 설교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심방과 구역관리와 세상을 향한 봉사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에의 교육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교육에는 세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교사와 학생과 학교이다. 이 3가지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는것이다.

1) 교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훌륭한 교사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가 많이 있으면 교회교육은 성공한다. 교사는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여야한다. (요 13:13-15)

성숙한 교사가 성숙한 양을 키울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호의 "교회교육과 그 방법"을 생각할 때에 구체적으로 말 하려고 한다.

(다음호 계속)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정글순회 전도와 고아원등을 지원, 예배를 드림.
- 현지어 성경출판과 전도지 제작등 문서선교에 주력.
- 서부 뉴기니아(이리안자야) 지역에 선교사 파송을 위해 동역자 기도중.

— 기도 제목 —

- 선교사 부부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평안을 위해
- 현지 본부에서 선교사역에 동역할 선교사를 위해
- 42개 개척교회의 부흥과 지원사업의 원활을 위해

서독(육호기 선교사)

- 새 한인교회 목회 및 독일인, 교포들의 전도활동
- 교민회 활동과 선교 활동을 강화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 현지인 및 유럽복음화의 큰 사역자가 되시길.

— 애급(이준교 선교사)

- 고아원 및 넘마주이촌 등 구제사업.
- 포트사이드 가정교회 및 대림산업 현장예배를 인도
- 애급의 복음주의 교단 산하 선교사의 교육담당과 신학교에서 강의

- 2 개소의 개척교회 및 10개소의 농촌 교회를 지원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 한인교회 및 각 예배 처소의 목회활동을 위해.
- 원주민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을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85년 2월중 신년 심방을 은혜중 마침.
- 2월10일 원주민 장로교회에서 장년 40명, 어린이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 2월중 남 1, 2 선교회 수양회와 여 제 2 선교회 수양회를 가짐.
- 2월22일 '85년도 한인 유치원 입학식을 거행 (53명)

— 기도 제목 —

- 특별히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 원주민 선교사업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개척 1, 지원 11)
- 경제안정과 설계중인 교회의 증축을 위해.

칠레(유재일 선교사)

- 3월 5일 산티아고를 강타한 지진중에서도 건축중인 교회건물에 약간의 피해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함.

- 칠레인 교회인 산티아고 중앙교회와 토코비자 개척교회 선교.
- 매주 고아원을 지원 예배 인도.
- 현지 사역자를 양성코자 호세 바스켓스군과 현지인 신학생을 양성 지원 활동.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을 위해
- 칠레 한인 연합교회의 부흥을 위해
- 칠레 원주민 선교와 사역자육성통해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길.
- 진행중인 새성전 건축을 위해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브뤼셀 한인교회예배 및 구역예배 인도, 성경공부등 은혜중 진행.
- '젠트' 향에 정박중인 오.엠 소속 "둘로스"호를 방문, 선박에 승선중인 한국 봉사자들과 한국음식등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
- 구라파 한인선교 교회 은혜중 부흥, 2월11일 하루를 심방의 날로 정하고 병원 및 가정들을 심방.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 브뤼셀 한인교회가 주안에서 성장하며 좋은 조건을 갖춘 새

교회당 이전을 위해.

- 외향선 선교 및 선원교회 선원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 현지인 및 유럽의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 예루살렘 한인교회 목회 및 히브리 대학 대학원에서 학업중
- 성지방문, 답사,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성지순방객의 안내와 전도 및 성경적 이해를 도모
- 현지 아랍인 선교 및 유대인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증진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 성지 연구소 법인체 설립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 예루살렘 한인교회의 성장과 화평을 위해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 카시밀 지역의 연합 활동과 행사 및 사업지도등 기독교 사역자 연합활동.
- 프리그어 성경번역(요한복음, 마가복음 완성) 및 티벳어, 인도어, 프리그어 등 성경배로
- 의료진료 활동 및 진료소 운영.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
- 지역사회 개발 사업 및 전도 사업에 필요한 동역자 및 재정 지원을 위해
- 성경번역 및 전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유병세 선교사)

- 2월16일 선교지에 온후 처

음 있는 일로써 눈이 너무 많이 오므로 인해 길이 막혀 히로오 교회 및 호로이즈미 교회의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

- 전도의 열매 권영임씨 본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기쁨의 인사를 전함과 함께 장남 덕을 심방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문안.

- 기도 제목 -

- 선교사 부부의 강건함을 위해.
- 의료진료 활동 및 일본인 선교를 위해
- 부인 성경반의 부흥을 위해

라성총현교회(정상우 목사)

- 선교의 지상명령을 받아매월 \$ 1,000씩 애급선교지는 지원키로 결정, 명실공히 선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
- '85년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교위원회 총회를 실시 임원을 선출.
- 회장: 김의철장로, 지도: 김영희목사, 부회장: 박규만장로, 정선화권사 총무: 신동수 집사 서기: 최진배집사, 회계: 김성주집사 외 임원을 선출. 62명의 회원에 가입.
- 3월10일부터 김영희 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선교를 위한 성경공부모임을 개강.

- 기도 제목 -

- 정상우 목사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 라성총현교회가 주은혜중 발전되며 선교사업에 앞장서 더욱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 새로이 조직된 선교위원회 임원들의 책임감당을 위해

털사총현교회(강성진목사)

- 존 나스 교회당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성전건축코자 대지를 구입 건축허가를 받음. 인근 1,000여평의 추가 매입계획.

- 기도 제목 -

-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 한인교회의 부흥과 교민의 복음화
- 성전대지 추가구입과 건축착공을 위해

홍콩총현교회(오치용 목사)

- 3월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서울 총현교회 수석부목사 장정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선교부흥회를 개최 은혜중 마침
- 4월경에 가질 선교바자회를 5월경 홍콩총현교회 설립, 1주년에 맞추어 가질 예정으로 기도중

- 기도 제목 -

- 오치용목사와 가족의 건강과 평안함을 위해
- 홍콩총현교회의 안정과 주안에서 부흥 성장을 위해
- 5월경에 가질 선교바자회를 위해

뉴욕총현교회(박종만 목사)

- 3월11일 오후 3시20분 박종만 목사 가족의 비자수속을 주님의 은혜중 마치고 오후 5시 대한 항공편으로 라성총현교회, 털사총현교회를 경유, 무사히 도착
- 새로 부임하신 박종만 목사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현지 적응을 위해



“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되길....”

작년 한해 저의 부친께서 이곳 캐나다를 다녀 가셨는데 그 때부터 제 집 주소로 ‘월간충현’이란 잡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그 중 하나를 읽어오던중 그 가운데서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해방신학의 글과 W.C.C의 문제점, 우리의 신앙 자세들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중략)

이 시대 교회의 절대 다수가 W.C.C의 배교에 휩쓸려 갔고 그 나머지는 병적인 성령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더이상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신앙이고 또한 교회인지조차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혼암과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곳 캐나다에 와보니 한국인 교회들도 변질된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서양의 교회라는 것이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교회안에서 참 신앙의 능력을 찾을 수 없고 W.C.C의 멤버들이 되어 세계 종교의 통합, 카톨릭과의 화해, 인간 종교와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사상을 대치시키고 있는등, 참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세의 증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대에 주께서 요구하시는데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여 세운 교회로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태를 드러내고, 16세기 종교개혁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고 또 세상에 전파, 후대에 전수하며, 이 시대에 적으나마 배교의 사실앞에 신령한 전투를 할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무쪼록 충현교회가 참 신앙을 고수하고 악하고 거짓된 신학과 사상에서 지키시고 불신앙과 배교의 시대에 주께 많은 열매를 드리시는 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토론토 개혁신로교회에서 이태영 드림

□ 이름없이 빛도없이 □

전도에 앞장선 노인전도팀



우리 교회 소망부에 적을 두고 있는 10명의 장로, 집사들이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3년전부터 이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개인용돈을 아껴가며 전도에 힘쓴 이들은 모두가 백발이 갠 70세 이상의 노익장들이다.

우성원장로를 비롯하여 정규복, 정병규장로, 신운호, 조범식, 조창선, 최안영, 강용재, 장일준, 박구순등 10명은 매주 목요일만 되면 교회당에 모두

모여 먼저 기도회를 갖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도에 힘쓴다.

이들 노익장 전도팀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바람이 불어도 이에 개의치 않고 국립병원 3군데, 대학부속병원 5군데, 보건소 12군데, 운수회사 1군데, 개인병원 10여군데에 월간충현과 충현의 말씀, 그리고 전도지등을 전도문서함에 꽂는 일과 (문서함은 전도위원회가 제작하여 각 병원에 설치했음, 직원 및 외래환자들 개인 개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청의 보건소등지에서 직장예배를 드리는데 도와주고 특별 요청하는 병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 전도와 위로 및 예배의 시간을 갖는다.

자비량으로 이름없이 빛도없이 진행된 동 노인전도팀은 최근에 전도위원회가 주선한 약간의 점심값 등을 받고 있으나, 이것 역시 부담스럽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정규복장로와 조창선집사는 기자에게 “비록 우리들이 나이먹고 늙었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 노인네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전도하는 일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힘이 솟구친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노인전도팀의 전도결과가 성숙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도와주는 후원이 필요할 것 같다.



교회부흥회 4월 8일부터

강사 길자연목사, 새벽·낮·저녁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85년도 교회부흥회가 4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본교회당에 실시된다.

전교인들의 신앙성장과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개최되는 동 부흥회는 새벽 기도회(오전 5시)를 비롯하여 낮성경공부(오전 10시 30분), 저녁부흥회(오후 7시 30분)로 진행된다. 강사는 서울 신림동교회 당회장이자 길자연목사이다.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온 교인들이 특별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사 길자연 목사를 통한 풍성한 영적 양식의 공급을 위해(엡 1장 17~19절), 전 교인

의 참여를 통한 전 교인의 회개운동, 사랑의 운동이 전개되도록(요일 3장 18절), 그리고 총현교회의 5대목표(천국일꾼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새성전건축)가 힘차게 이루어지도록(빌 4장 13절) 모두가 기도하도록 했다.

85년도 문답·세례식 제 2차 성찬식 가져

예배위원회는 지난 3월 28~29일 실시한 85년도 제 2차 문답·세례식 보고에서 1백 66명이 학습·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문답식에는 학습 56명,

세례 62명, 유세 41명, 입교 4명, 개종 3명 등 모두 1백 66명이다. 한편 3월 31일 주일엔 85년도 제 2차 성찬식도 거행했다.

구역권찰회 및 기조실 연석회의 개최

지난 3월 10일 4부예배후 선교관 4백 5호실에서 구역 권찰회 교역자 20명과 기조실 위원 8명 등 28명이 연석회의를 갖고 교회부흥 발전책에 따른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인 현황과 악을 철저하되, 보류세대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구분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아파트지역의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문서전도를 개발하고 주간 뉴스지를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교회전반의 재정 및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구의 통계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교구목사와 교인들과 실질적인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구목회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할 것등에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만목사 뉴욕지교회 파송예배 드려

교회는 박종만목사 뉴욕지교회 파송예배를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 30분 본교회당에서 거행했다.

이날 파송예배는 장정일목사 사회로 진행, 한경일장로(세메선교회 회장)의 기도, 성경요한복음 1장 1~18절 봉독후 제 3부 찬양대회 찬양, 신성종목사가 "선교사의 모형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파송장 수여와 세계선교회의 기념품증정이 있었다.

충현유치원 개원



3월11일 입학식도

우리 교회는 85년 3월 11일 오전 11시 첫 입학식을 가지므로 관인 “충현유치원”이 개원되었다.

개원예배에는 70여명의 원아들과 학부모 그리고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전 원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기획조정실장겸 유치원 이사인 최석주 장로의 기도, 본교회 당회장이며 유치원 이사장인 김창인목사의 설교와 축도가 있었다.

동 입학식에서 원장 우기전 장로는 인사의 말에서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전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현유치원의 이사 및 실무진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 김창인목사, 이사 : 조영길목사, 최석주장로, 윤명식장로, 정하우장로, 박용삼장로, 우기전장로.

△ 원장 : 우기전장로, 원감직무대리 : 김정자전도사, 교사 : 이미라, 한혜경, 김희중.

주교 종합사무실 개설 교육관 201호 202호 통합

교육위원회는 그간 각부서별로 별도 사무실을 한곳으로 통합, 종합사무실로 개설하여 지난 3월24일부터 사용되고있다.

4부 (영아·새가정·새신자·

소망부)를 제외한 12부가 함께 종합사무실을 이용케 되는데, 교육환경개선과 분반공부실 활용 그리고 주교행정의 원활화에 큰 몫을 담당케 될 것이다.

지교회 교역자 초청 세미나

전도위원회 (위원장 정석태장로)는 지난 3월26~27일 충현기도원에서 지교회, 지원교회, 위탁교회 교역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명의 교역자 및 전도위 임원이 참석한 동 세미나의 강사는 이세열목사와 이양우목사였다.

남전도회 헌신예배

85년도 남전도회 헌신예배가 지난 3월24일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드려졌다.

우기전 제1 남전도회 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헌신 예배는 제2 남전도회 회장 오태희 장로의 기도, 성경 로마서 12장 1~2절 봉독후 남전도회원 부부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신성종목사가 “헌신의 이유와 방법”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본교회 장로들 모임 사랑의 친교 가져

본교회 장로 50여명은 지난3월 23일 오후 6시 30분 하이아트 호텔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모임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금된 김영삼 장로 내외분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최대원 장로 사회로 진행, 최석주장로의 기도, 윤종순장로의 설교로 마치고 2부엔 자유롭게 대화를 가졌다.

신입생 초청전도 집회 교육위 대학부 주관

대학부 (부장 정하우장로)는 지난 3월30~31일까지 대학부 신입생 초청 전도집회를 가졌다.

동 집회의 강사는 김성주 목사이다.

서울 기독교사회 회장에 조인제장로 선임

서울지역 기독교사회에서 지난 12월 85년도에 일할 임원진을 개선했는데 동회 회장에 본교회 조인제장로 (의료전도회회장)를 선출했다.

서울 기독교사회는 간질환자 무료진료등 의료선교를 위한 단체이다.

4월 첫주간 대청소 봉사위원회서 실시

봉사위원회 (위원장 박치민장로)는 4월 첫주간 교회당 외곽 주변 준계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봉사위원회가 주관하게될 동 대청소에 온교회 성도들의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

김성주장로 일시귀국

본교회 창설시 18명 교인 가운데 한사람인 김성주 장로가 일시 귀국하여 본교회 성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주 장로는 10여년전 도미하여 오랜지 한인교회에서 교회봉사에 충성하고 있다.

이현실권사

피아노 3대기증

본교회 이현실권사가 주교교육에 써달라고 피아노3대를 교육위원회에 기증했다.

동 피아노는 충현유치원 및 주교부서 성가 및 예배용으로 사용케 된다.



도곡구역 석전
삼성구역 여중녀
서초구역 이일용
용산구역 최순영
과천구역 조형수
왕십리구역 이금단
행당구역 나광균
개포구역 박영자
정당구역 조영란
서초구역 이재덕
신림구역 김현숙
벽제구역 박선숙
거여구역 나인광
목정구역 하갑선
대치구역 이성희
역삼구역 김선미
신사구역 현창용
이태원구역 이상하
종로구역 박재원
잠실구역 모숙현
남장구역 김미정
역삼구역 김인순
방배구역 김인평
서초구역 정혜인
과천구역 조찬수
길음구역 이종수
홍익구역 장금례
삼성구역 박태정
역삼구역 구진모
서초구역 황영애
구로구역 송미라
신당구역 정미숙
홍익구역 문영수
개포구역 조영철
역삼구역 차정화
잠원구역 노명진
임월구역 강계영
입산구역 노승이
보문구역 김영자
삼성구역 박지영
역삼구역 김묘순
성남구역 이용기
갈현구역 홍순호
잠실구역 정금예
개나리구역 박동춘
성남구역 조주현
부천구역 장덕희
신당구역 한정숙
도선구역 조옥연
역삼구역 김태화
역삼구역 이승수
역삼구역 전혜정
삼성구역 강영숙
신림구역 금순교
아현구역 신선옥

송파구역 박창욱
행당구역 김영미
장충구역 광정일
역삼구역 최성봉
개포구역 김원길
개포구역 노해룡
신림구역 김학인
개봉구역 이상득
미아구역 신홍신
성내구역 이연실
중곡구역 한은옥
예장구역 김미정
은마구역 구본석
강북구역 장숙자
역삼구역 임순엽
봉천구역 김정숙
인전구역 이우자
광주구역 정영숙
성수구역 김기현
성수구역 김갑덕
역삼구역 손옥녀
개포구역 강상림
대치구역 윤영의
봉천구역 손경애
인전구역 김희선
송파구역 김삼자
마장구역 김내용
홍익구역 최영순
대치구역 김정숙
개포구역 전한우
논현구역 김종애
신림구역 김금수
수유구역 김용업
면목구역 최경자
자양구역 한병선
역삼구역 송정학
서초구역 김희숙
신림구역 조상호
시흥구역 임은옥
수유구역 이인숙
가락구역 이복자
하왕구역 강현숙
군자구역 이영현
도곡구역 이현구
신사구역 이현구

봉천구역 김완구
광명구역 신계희
종로구역 정남희
잠실구역 이준건
송정구역 이인섭
역삼구역 박순자
방배구역 한성일
용산구역 한성숙
인입구역 김민재
도봉구역 윤종호
잠실구역 서석태
자양구역 이원순
대치구역 이선경
삼성구역 정학주
역삼구역 서원희
봉천구역 김한수
구로구역 윤영윤
봉천구역 석미옥
장인구역 전근실
둔촌구역 양남성
을지구역 박명순
역삼구역 박지식
역삼구역 김상록
공무원구역 문행숙
사당구역 조종호
내발산구역 양순애
성수구역 임세영
장안구역 박지용
방이구역 김현진
역삼구역 서규석
개포구역 장지훈
신사구역 김순자
용산구역 김명래
인전구역 박홍남
쌍문구역 김경호
잠실구역 김옥남
장충구역 유성용
은마구역 김제구
역삼구역 정상현
신계구역 박희경
용산구역 김명옥
독산구역 최연희
제기구역 이상진
가락구역 윤종철
을지구역 김금순

김완구
신계희
정남희
이준건
이인섭
박순자
한성일
한성숙
김민재
윤종호
서석태
이원순
이선경
정학주
서원희
김한수
윤영윤
석미옥
전근실
양남성
박명순
박지식
김상록
문행숙
조종호
양순애
임세영
박지용
김현진
서규석
장지훈
김순자
김명래
박홍남
김경호
김옥남
유성용
김제구
정상현
박희경
김명옥
최연희
이상진
윤종철
김금순

△이기성군(이원희장로 권순애 권사 아들)과 윤혜경양(윤용규장도사 박월희 사모 딸) 2월27일 오후 3시
△지장재군과 김송자양(초등부교사, 보광구역) 2월28일 오후 1시
△김충수군(김영무씨 아들)과 최양숙양(최인호씨 딸) 3월 1일 오후 2시
△김대용군과 마애경양(마석락 장로, 김춘희집사 딸) 3월 1일 12시30분
△정득균군(상도 1구역 정수균집사 동생)과 송방실양(봉천구역 송영원씨박옥순씨 딸) 3월 1일 오후 2시
△오창화군과 김미경양(김덕환집사, 이춘일권사 딸) 3월 2일 오후 3시 딸
△오창근군(오리온장로 최수남권사 아들)과 한계은양 3월 1일 오후 2시30분
△김의환군(김상수씨 이현순권사 아들)과 한혜정양 3월 7일 12시
△유형식군(장 2 이경희씨 아들)과 제오복양 3월 9일 오후 2시30분
△박봉진군(박성찬씨 이현순권찰 아들)과 윤명숙양 3월 9일 오전 11시
△이애란양(이재수씨 윤성숙집사 딸) 3월 16일 오후 2시
△조선란양(조용환집사 딸) 3월 16일 오전 10시
△안호성군(필동구역 임정자집사 아들)과 송민정양(필동구역) 3월 20일 오후 1시
△손병기군(홍제구역)과 이현아양(북한선교원 이사 이주식장로 딸) 3월 22일 12시30분
△한동훈과 신은희양(신현상장로 심숙권사 딸) 3월 22일 12시
△안백희군(역삼구역 안상경씨 손호임씨 아들)과 송혜경양 3월 23일 오후 2시
△김영숙양(충현10구역 김선배권찰 딸) 3월 23일 오후 2시
△신동희양(남궁규원권사 딸) 3월 23일 오후 1시
△김일철군과 천해원(6교구 천성용 집사 최금성권사 딸) 3월 23일 오후 2시
△오성현군(주교교사) 3월 23일 오후 2시
△강원군(박종민집사 아들)과 이희정양 3월 23일 오후 2시
△김태호군(성내구역 전덕희집사 아들)과 김소화양(잠실구역) 3월 25일 오후 1시
△정대수군(삼성구역)과 최귀향양(김옥련씨 딸) 3월 26일 오후 1시
△김동균군(김시영씨 백선경집사 아들)과 황정숙양(인의구역) 3월 27일 12시



△최병하(여정옥집사 부군) 2월17일
△염병진권사(중곡 1) 2월22일
△차정준 권사(문래구역) 2월27일
△박상문집사(김정래권사 부군) 3월1일
△조동선씨(창신 4구역) 2월23일
△위미련씨(구산구역) 3월 4일
△오수임씨(암사구역) 3월10일
△박안순씨(물류구장로 모친 박영림 집사 시모) 3월12일

4월의행사

무도(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회
2일 / 4월 정기당회 ☐ 제직회
7일 / 정기제직회 ☐ 기획조정실
7일 / 월간충현 4월호 발행 ☐ 구역권찰회
15일 / 교구아외예배
22~26일 / 교구전도요원 훈련
26일 / 교구 총동원 전도
28일 / 총동원 전도주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위원회
8~13일 / 교회 부흥회 ☐ 전도위원회
16일 / 직장전도 세미나 ☐ 북한선교위원회
7~13일 / 사찰 경건훈련 ☐ 교육위원회
15~18일 / 대학부 세미나 ☐ 충현세계선교회
14일 / 선교특강 |
|---|--|

편집후기

☆ 4월은 우리교회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총동원전도에 심혈을 기울인다.

또 교회부흥회도 개최하여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의욕을 고취하며, 이웃 불신자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된다.

그런 의미에서 4월 특집은 전도에 대한 기획물을 전도위원회 소속 교역자 및 임원들에게 배려했으며, 전도에 온 교회가 참여하는 기도운동을 전개토록 했다.

☆ 또 4월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다.

협동목사 신성종목사의 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의 현대적 의의와 우리의 신앙 자세등을 재조명토록했다.

☆ 4월은 우리교회가 총무로 5가에서 강남구 역삼동 새예배당으로 이사온지 꼭 1년이 되는달이다.

이사온후 1년동안 우리 충현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으며, 또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집좌담회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모두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그지없었고, 2천년대를 향한 충현의 비전이 제시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교구 및 구역활성화가 교회부흥의 첩경이 된다는 점도 깨닫게되었다.

☆ 4월 한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30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충현

1985년 4월호

제13권 4호 (통권128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5년	1월	2일	인쇄
1985년	4월	6일	발행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최석주
주간			이성근
홍보출판부장			김광신
편집위원			장정일
			조현명
			조영길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665-1
전화 / 562-4181~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4월 8일부터 실시될 교회부흥회 현수막



▲ 85년도 제 2차 성찬식



▲ 충현유치원 개원예배



▲ 기획조정실 및 구역권찰회 연석회의



▲ 충현유치원 85년도 입학식



▲ 전도위 주관 남녀전도회 임원 연석회의

부활 과 생명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